

 세종대학교 SEJONG UNIVERSITY 	1년 52주 1만5천6백명의 국내 여행계획		기 관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
			책 임	김형곤 소장/Ph.D
	▶ '16년 11월 10일(목) 배포 ▶ 자료 총 4매		문 의	김민화 객원연구원/Ph.D
			이 메 일	kimmh@consumerinsight.kr
			연 락 처	02) 6004-7643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컨슈머인사이트 공동기획>

우리나라 국민의 66%, 향후 3개월 내에 국내여행 계획 '있다'

- 제주·강원도로 가겠다. 22%로 공동 1위
- 숙박·교통편 예약은 여행사 예약 사이트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
- PC인터넷 예약 강세 계속, 앱 보다는 통화가 편리해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여행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2015년 8월 매주 300명, 연 1만5천6백명에게 1박 이상의 국내여행 계획을 묻는 조사를 시작했다. 여행수요의 단기에측을 위해 시작된 이 조사의 지난 1년 52주간(2015년 10월~2016년 9월)을 요약하면 우리나라 국민 중 66%(10,296명)가 3개월 이내에 1박 이상의 국내여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 중 29%는 3주 내에 출발할 계획이었고, 41%는 예약을 마쳤으며, 여행경비는 1인당 19만원을 예상하고 있었다.

▲1년 중 평균 여행계획 보유율은 66%인데, 1/4-2/4분기(각각 61%, 64%) 보다는 3/4-4/4분기(각각 68%, 70%)에 더 높았다. 겨울, 봄 보다는 여름과 가을이 국내여행을 떠나기에 더 좋은 시기로 보고 있다.

▲여행 계획지로는 제주와 강원이 각각 22%로 선호도가 높았다. 제주와 강원은 계절 따라 1·2위를 오갔는데, '제주'는 봄, '강원'은 가을과 겨울에 많은 선택을 받았다. 제주는 따뜻한 날씨를 먼저 맞으려는 가족단위의 여행, 강원도는 겨울 레포츠를 즐기려는 젊은이의 선택이 많았다. 다음은 부산(10%), 전남·광주(8%), 경남·울산(7%)의 순이었다. 부산·경남·울산을 합하면 17%로 제주·강원에 크게 뒤지지 않는 선호도를 보였다.

▲여행기간은 2박3일이 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박2일이 31%였다. 평균 2.5박으로 대부분 주말을 이용한 짧은 일정을 세우고 있었다. 주말 연휴나 징검다리 휴일이 있는 시기가 많은 선택을 받았다.

▲부모/형제/자녀와 함께 가거나, 배우자와 가는 가족 중심의 여행계획이 많았다. 동행인에 따라 선호하는 여행지도 차이가 있었다. 가족여행은 제주·강원, 친구/연인과는 부산이 인기 있었다.

▲교통편은 승용차가 절반 이상(56%)이었고, 다음은 항공(20%), 기차(10%) 순이었다.

▲주 선호 활동은 자연풍경 감상(32%), 휴식(19%), 식도락(15%)의 순이었다. 시각과 미각 중심의 비활동형 휴양여행을 선호했다.

▲총 여행 예산은 1인당 평균(중앙값) 19만원이며, 숙박은 1박에 10만원, 식사는 1끼에 1만 4천원을 예상했다. 총 여행비용은 제주가 평균 46만원으로 강원 22만원, 부산 26만원 보다 20만원 이상 높았다. 일정이 상대적으로 길고, 교통비 비중이 높은데다가 비싼 물가까지 가세해 해외 보다 비싸게 든다는 심리적 저항을 만들고 있다.

<표 1> 국내 여행계획(15년 10월~16년 9월)

		전체	'15년 4/4분기	'16년 1/4분기	'16년 2/4분기	'16년 3/4분기	
(사례수)		(15,600)	(3,900)	(3,900)	(3,900)	(3,900)	
국내 여행계획 '있다' (3개월 내)		66%	70	61	64	68	
▽							
(사례수)		(10,386)	(2,655)	(2,537)	(2,575)	(2,619)	
언제 출발?	1~3주 내	29%	38	27	25	35	
	1~6주 내	57	59	46	51	58	
어디로?	제주	22%	21	24	24	21	
	강원	22	24	19	21	23	
	부산	10	10	11	10	9	
기간은?	1박 2일	31%	32	33	27	31	
	2박 3일	34	33	33	35	36	
	3박 4일	16	15	18	19	16	
	평균	2.5박	2.5	2.4	2.6	2.4	
누구와	동행인 (복수응답)	부모/형제/자녀	40%	38	37	44	41
		배우자	34	32	33	35	34
		친구/직장동료	23	22	25	24	23
	인원 수 (본인포함)	혼자서	8%	9	9	7	8
		2명	31	32	32	29	31
		3명	16	17	17	16	16
		4명	23	22	23	24	23
		평균	3.4명	3.3	3.3	3.5	3.4
무엇을 타고?	승용차(렌터카 포함)	56%	55	52	56	60	
	항공	20	20	22	22	19	
	기차	10	11	10	9	9	
무엇을 하러?	자연풍경 감상	32%	32	32	34	30	
	휴식	19	19	18	19	21	
	식도락	16	16	17	15	15	
예약은 ?	했다	41%	42	40	40	40	
	안했다	59	57	58	60	60	
평균 예산은? (1인당)	총 여행비용(1인) 평균	19만원	19	19	19	19	
	숙박(1박)	10만원	10	10	10	10	
	식사(1식)	1.4만원	1.4	1.3	1.4	1.3	

▲여행 계획자 중 41%는 숙박·교통편을 이미 ‘예약/구입했다’고, 59%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했다. 예약/구입 경로는 ‘업체에서 직접’이 33%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예약(소셜커머스, 예약사이트, 오픈마켓)을 합치면 32%로 ‘직접 구입’과 비슷했고, 전통 여행사는 14%에 그쳤다. 아직 하지 않은 예정자는 ‘업체에서 직접 구입 예정’이 47%로 더 높았고, 여행사는 9%로 더 낮았다.

▲예약/구입 방법은 ‘PC인터넷’(50%)이 강세였다. 데스크탑에서 모바일로 옮겨가는 현상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여행상품 예약/구입은 ‘PC인터넷’이나 ‘전화’와 같은 전통적 경로를 선호했다. 아직 예약/구입을 하지 않은 계획자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해외에 비해 공급자(숙박업체·교통편)와의 직접 거래가 쉬운 국내는 중간 유통채널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2> 국내여행 예약 상황/경로

(전체, n=2,548)

		교통편·숙박 등을 예약/구입...	
		‘했다’ (n=1,034)	‘할 예정이다’ (n=1,514)
예약/구입 채널	직접 업체와 예약/구입	33%	47%
	소셜커머스 (쿠팡, 티켓몬스터)	13	12
	온라인/모바일 예약 사이트 (익스피디아, 아고다 등)	12	12
	온라인 오픈마켓 (인터파크, G마켓 등)	7	5
	여행사 홈페이지/모바일앱	7	5
	여행사에 직접전화	7	4
	TV홈쇼핑 및 기타	5	5
	다른 사람이 예약/구입	16	10
예약/구입 방법	PC인터넷 사이트	50%	50%
	전화통화	23	18
	모바일 앱/사이트	19	21
	직접방문	6	9
	기타	2	3

이 조사는 매주 일정 규모의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어서 장기간 동안의 변화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볼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첫 출발로 1년간의 결과를 묶어서 정리했으나 앞으로는 각 분기 또는 월별로 바로 전 기간, 아니면 1년전 동일 기간과의 비교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월별-분기별 변화는 물론 전년 동월-동분기와와의 비교를 통해 시장의 현황과 변화를 역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

이 조사 결과는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여행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동기획한 ‘여행시장 단기예측 조사’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매주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주례 조사로 2015년 8월 24일에 시작했고, 현재까지 총 표본 수는 18,900명(총 63차)입니다. 매주 화요일 전 주까지의 주요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기존의 조사결과와 분석 리포트는 www.consumerinsight.kr/travel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 ·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의
보도자료는 인터넷(www.consumerinsight.kr/travel)에 수록되어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김민화 연구원(컨슈머인사이트 책임연구원)/Ph.D
정경식 컨슈머인사이트 선임연구원/Ph.D
문지효 컨슈머인사이트 선임연구원/Ph.D

kimmh@consumerinsight.kr 02)6004-7643
jungks@consumerinsight.kr 02)6004-7627
moonjh@consumerinsight.kr 02)6004-7631

★ 발표자의 명시적인 승인이 없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